

함께하는 노사...①

새천년의 원년을 앞두고 우리 사회 각분야에서는 기존의 틀과 사고를 깨고 새로운 천년에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뉴 밀레니엄 시대를 맞아 분야별 현안을 적시하고 해법과 대책을 조명하는 특집으로 ①

함께 가는 노사 ②교육,수업에서 학습으로 ③국민이 사범의 주인 ④공직주의,의식극복해야 ⑤공직사회,의식부터 변화 ⑥시민운동이 「시민사회」 연다 ⑦그늘없는 사회로 ⑧「에」갖춘 성숙한 시민으로 등을 다룬다. <편집자주>

99년 한해동안 발생한 노사분규는 모두 129건으로 3월에 한 번씩 발생한 셈이고 분류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만도 145만2천여 일에 달한다.

국가경쟁력 평가에 권위있는 스위스 IMD(국제경영개발원) 보고서가 평가한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국제경쟁력은 조사대상 47개국 중 46위.

무한경쟁시대라는 새천년에 지금같은 노사관계로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살아남기 어려우며 시대의 흐름이 변해가며 우리의 노사관계도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웅(李東應) 조사부장은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만이 노사협력이었지만 앞으로는 노사가 모두 법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투명한 노사 관계를 형성한 뒤 그 위에서 협력관계를 쌓아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노사 모두가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앞으로 설비 자동화 및 기업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 고용불안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뒤따를 수 밖에 없고 이는 곧 노사관계의 갈등요소로 작용할 가

화합·협력하는 새 노사문화 창출을

분배교섭방식 과감히 탈피해야

법원칙 지키는 투명한 관계 유지

나야 한다는 사실이 IMD 보고서에 담긴 메시지이다.

그러나 당장 뉴 밀레니엄 원년인 2000년의 노사관계에 대한 전망은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편이다.

노사정위체 지난 10월 노사정, 학계,시민단체 등 노동관련 전문가 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노동계와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70% 이상이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는 해를 넘기기 직전인 12월 노조전일자 임금급 문제 둘러싼 노동계의 동투(冬鬪)로 바로 현실화 됐다.

전문가들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사정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근로자 복지를 확충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노동운동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보통신업의 눈부신 발달,경제활동 인구의 고령화, 생산설비 자동화,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시사각각 변하는 경제환경에 맞춰 노사도 함께 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같은 갈등을 극복하려면 사용자 노동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한국노총 이정식(李正植) 정책기획국장은 「노동자의 창의적인 능력개발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 및 훈련에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사용자들의 자세변화를 촉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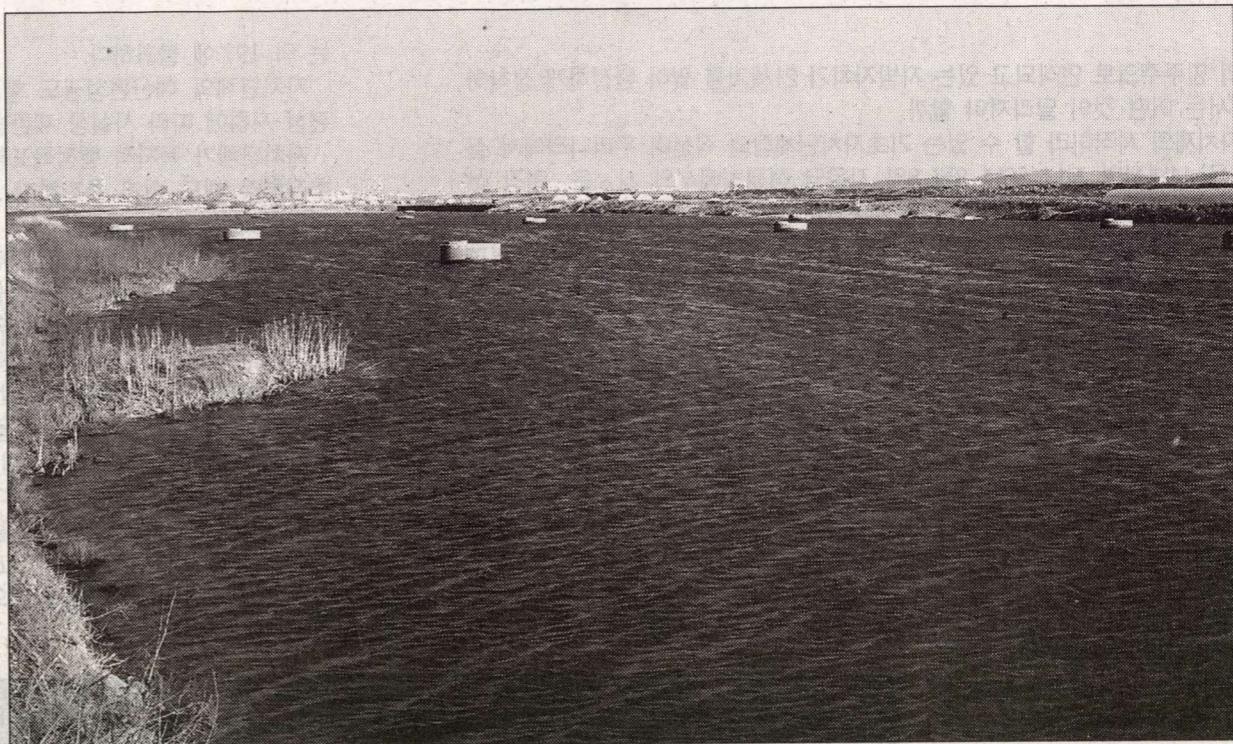
그러나 노동계 역시 임금이나 복지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만 하려는 분배주의의 노조활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이상용(李相龍) 노동부장관은 「변화의 시대를 맞아 대립을 조정하는 분배교섭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미래의 가치를 창출하는 노사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신노사문화의 창출만이 21세기에 대비하는 우리의 생존전략」이라고 말했다.

「분배」의 차원이 아닌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문화를 창출하지 않고서는 뉴밀레니엄 시대에 「생존」할 수 없다는 경고인 셈이다.

“맑은 물 공급은 생존문제와 직결”

새천년에는 물이 값비싼 자원이 될 것이 틀림없다. 한국의 경우 2006년부터 물부족을 겪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물은 다른 자원과 달리 대체재가 없다는 점에서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물의 무기화를 선언, 인접국과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하다. 수자원 절약과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오염방지 노력이 과거 어느때 보다도 절실했다. 새천년을 맞아 물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특집을 5회 시리즈로 엮는다. <편집자주>



맑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한 오염방지 노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사진은 최근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형산강>

낙동강 등 4大江 이어 농촌 실개천까지 오염 수량확보·수질보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 지역별 오염 총량제 등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우리 조상들은 병이 생기면 우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약을 쓰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찌기 지난1955년 「깨끗한 물이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구호를 내걸고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물은 인체건강은 물론 생산활동에 불가결한 요소다. 정부는 그간 댐건설 등 수량 확보 위주의 개발정책을 펴오면서 수질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팔당호 등 상수원 인근까지 난개발을 방치했고 환경기초시설 투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을 그야말로 「물쓰듯」 방치해온 것이다.

그간 낙동강 폐물오염 등 크고 작은 수질오염 사고가 잇따르면서 「깨끗한 물」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높아진 반면 지방자치 실시후 개발우선의 논리가 더욱 힘을 받아

물관리 여건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한강 등 큰 강들은 물론 농촌의 실개천까지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규모 공단지역은 그만두고 전북 군산

외곽의 조그만 서수농공단지를 보자. 지난 91년 준공된 단지 주변은 이제 더이상 물 맑은 시골이 아니다. 식품·유지·전자업체 등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폐수가 농수로 흘러들어 물고기가 없어진지 오래다. 오폐수의 악취는 주민들의 두통까지 유발하고 있으나 관할 군산시청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은 민원을 서로 떠넘기고 있다.

최근 팔당 수질개선 대책수립 과정에서 불거진 상류지역 주민들의 반발, 새만금수질보전 문제, 위천공단 개발과 수질개선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낙동강 상하류지역 문제, 영월 동강댐 건설 백지화 운동 등에서 보듯 물문제는 이미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중대 이슈가 됐다.

상수원으로 쓰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 강의 물은 소독약으로 정수처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2급수로 전락한지 오래다. 종래 상하류간 수량 확보를두고 벌여졌던 물고싸움이 이제는 수질오염의 원인과 책임소재 놓고 지역간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수량확보와 수질보전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돼 있다.

환경부 광결호국장은 「맑은 물 공급은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오는 2005년까지 전국의 모든 상수원을 2급수이상으로 개선하고 나머지 하천도 최소한 농업용수로 사용이 가능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질개선 대책은 시행착오로 점철돼 있다. 지난 90년 팔당상수원 주변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하고도 식당·여관 등의 건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97년에 90년당시보다 이들 오염원이 35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맑은 물을 공급을 위해 지난 93-97년 17조원을 투자했으나 하수처리율은 53%에 불과하다. 깨진 하수관 등이 정비안 돼 그대로 지하수를 오염시키면서 강까지 흘러가는 하수도 많다. 고농도의 축산폐수 처리체계 역시 문제는 비슷하다.

수량문제에도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치보다 많지만 인구가 과밀해 1인당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9분의 1 수준이다. 현재 강수량을 제외하고는 만성적으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없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물을 물쓰듯」하는 추세라면 2006년부터는 대부분의 수계에서 물부족을 겪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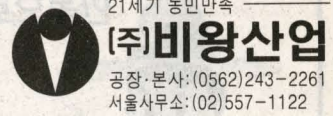
한국물관리연구소 박인호 이사장은 「모든 국민이 물을 아껴 쓰고 강 상류와 지천부터 오염을 막고서는 수질악화, 수량부족의 2중고를 피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지역별 오염총량제 등을 도입하고 국토이용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꿔 깨끗한 물 확보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상·하류간 수질오염 책임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사진은 형산강 상류경주지역 오염현장>

새로운 비료로 미래환경을 개척하는 비앙-비넥스칼신

노동력절감/환경농업/고품질농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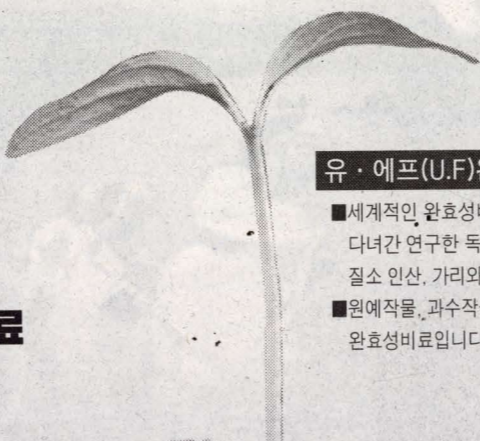


생명창고 / 흙을 살리자

저렴한 가격으로 성공적인 영농이 약속되는 비료

발전용! 비넥스-유.에프(U.F)® 완효성복합비료

흙은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사람은 먹어야만 활동을 할 수 있고, 하루 일정량 이상의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런 음식물을 베푸는것은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흙은 소중히 가꾸어 후손들에게 돌려줘야만 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흙! 좋은 흙을 유지하기 위해 비앙은 노력합니다.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흙을 위해 - 비넥스-유.에프(U.F)® 완효성복합비료

- 정부 보조 비료 지정

유·에프(U.F)완효성복합비료란?

- 세계적인 완효성비료 -포름 요소를 국내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서 다년간 연구한 독특한 제조공정으로 화학반응시켜 비료의 삼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와 미량요소 성분에 특수 처리하여 제조한 비료입니다.
■원예작물, 과수작물, 시설재배작물 등 밭 작물전용의 완전히 새로운 완효성비료입니다.

유·에프(U.F)완효성복합비료의 장점

- 질소, 인산, 가리의 삼요소 성분이 모두 완효성인 첨단기술로 만든 산비중입니다.
■비료 효과의 기간이 길어 효과가 있습니다.
■과비현상이나 질비현상이 방지되므로 작물의 생육이 건강해집니다.
■입속형 입자로서 한 입자 속에 3요소 성분이 모두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환경친화형비료이므로 지속적 농업이 아주 좋습니다.
■비료의 모양이 원주상각형이므로 경사지나 굴이형에서 균형있게 시비됩니다.
■작물 생육조건에 따라 필요시 추비하십시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상세한 안내 및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